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

충북대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 이 희 숙

인천대 생활과학부

교수 성 영 애

상명대 생활환경학부

교수 양 세 정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최 현 자

1. 서론

국가경제의 발전, 가계의 지속적인 소득상승과 함께 가계 보유자산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 가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가계경제문제의 발생은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가계가 유동성제약에 처하는 어려움을 맞기도 하고 또 신용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용불량 문제 등의 가계경제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재무관리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계가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이나 저축·투자결정을 스스로 하였으나 금융시장환경의 변화로 금융상품이 다양화되고 금리 및 환율이 불안정하며 또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소득공제제도, 소득세율과 같은 금융관련 정책이 빈번하게 변화하면서 전문적인 재무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금융기관들은 해당분야의 상담이나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가계의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서는 FP(금융자산관리사, 2001년 9월부터 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으로 명칭 변경), 한국FP협회에서는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와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등 소비자재무설계전문 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보험업협회와 전국은행연합회에서도 소비자재무설계 관련 자격제도를 준비중이다.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무상태의 평가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의 기준으로 재무비율의 이용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계의 재무비율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가계 경제 요소를 결합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재무상태 평가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재무비율을 통하여 가계재무상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재무비율은 재무상담과 계획시에 진단과 정보의 도구가 되며, 재정상태의 분석과 논의의 시발점이 됨을 주장하였다.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정적 능력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 구성된 객관적 척도로서 각 가계의 재정상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유용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다(양정선, 1997; DeVaney, 1993; Garman & Fogue, 1994; Prather, 1990).

재무비율관련 연구는 주로 미국에서 수행되었으며, 개발된 재무비율의 종류나 준거기준 또한 미국 실정에 적합한 것들이다. 이에 최현자 등(2002)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환경이 상이할 뿐만 아니

라 가계의 주요 재무목표가 주택마련이나 자녀교육에 두고 있어 미국에서 개발된 준거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재무상태 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을 개발하였다. 즉, 가계재무비율을 가계경제의 상태를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정성비율과 성장성비율로 분류하였으며, 안정성지표에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부채부담지표를, 성장성지표에는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지표를 포함하였고, 이에 따른 준거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현자 등(2002)이 제안한 재무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가계재무평가지표로서의 가계재무비율을 산출하고, 주어진 가계재무비율의 준거기준에 따라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였다. 또한 가계재무비율의 준거기준에 근거한 가계의 재정상태에 따라 가계재무 및 가계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재무비율 및 준거기준이 가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적합한지 그리고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재무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재무관리의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재무상담 및 재무설계서비스 전문기업이나 전문가의 업무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의 선정

최현자 외(2002)의 연구에서는 가계재무비율을 이용한 기존의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에 관한 고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가계에 적합한 재무비율을 제안한 바 있다. 재무비율은 가계재무관리의 일차적인 목표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서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가계안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후 가계안정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만족되면 현상태에서 더 나아가 성장, 발전을 하려는 목표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를 가계의 안정적인 생활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안정성지표와 가계의 발전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성장성지표로 나누어 보았다.

안정성지표로는 가계수지지표, 비상자금지표, 위험대비지표, 및 부채부담지표 등의 4개 지표를 선정하고 모두 7개의 재무비율로 이를 측정하였다. 성장성지표는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및 유동성지표 등의 3개 지표를 선정하고 4개의 재무비율로 측정하였다. 제안된 재무비율은 가계의 경제적 만족도와 관계분석을 통해 경제적 만족도의 임계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각 비율에 대한 준거점을 설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지표의 개념과 계산방법(재무비율), 준거기준은 <표 1>와 같다.

<표 1> 최현자 외(2002) 연구에서 제안한 재무상태평가지표 및 준거기준

재무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준거기준
안정성지표	가계수지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 0.9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 1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 1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 <0.2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
총부채/금융자산		< 10	
총부채/총자산		< 0.8	
성장성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
		금융자산/총자산	> 0.1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5< <0.1
		실물자산/총자산	< 0.9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매년 조사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의 6차 자료인 199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KHPS는 1993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까지 한국의 전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의 가계수지 및 자산/부채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1998년 자료의 총 조사가구수는 2,468가구였으나 이 중 소득자료의 신빙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구만을 산출하였으며 가계소득이 0이거나 그 이하 또는 소비지출이 0인 경우 자료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주자료의 최종 분석 표본가구수는 총 884가구이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빈도분석, univariate 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이었다.

2. 분석대상가계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대상가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과 같다. 평균가구원수는 3.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중 81.8%가 봉급생활자였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2.8세였고, 자가가구비율은 분석대상가구 중 59.7%였으며, 서울지역거주가구는 2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884)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구원 수	(평균: 명)	3.8	(1.1)주)	가구주연령	(평균: 세)	42.8	(10.8)
	1인	34	3.8		20대	78	8.8
	2인	81	9.2		30대	318	36.0
	3인	146	16.5		40대	266	30.1
	4인	436	49.3		50대	147	16.6
	5인	143	16.2		60대이상	75	8.5
가구주직업	6인이상	44	5.0	주거형태	자가	528	59.7
	봉급생활자	723	81.8		비자가	356	40.3
	기타근로자	161	18.2	주거지역	서울	213	24.1
가구주성별	남성	815	92.2		6대광역시	262	29.6
	여성	69	7.8		기타	409	46.3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임

3. 재무비율산출에 사용된 관련변수의 평균값

재무비율의 산출에 사용된 관련변수를 정리하면 <표 3>와 같다. 사용된 원자료에서는 월평균가계소득, 월평균생활비, 월평균저축액을 응답자에게 답변하게 하였는데 대부분 가계의 경우 월평균가계소득이 월평균생활비와 월평균저축액을 합한 값으로 대답하였으나, 일부 가계의 경우 다소의 차이가 있는 답변을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금융자산은 모든 금융권저축보유액 및 계부은 금액 및 사채 준 금액을 포함하였다.

1998년 근로자가계의 월평균가계소득은 192.2만원이었고, 이 중 생활비로 154.7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보험료로 11.7만원을 지출하며 부채상환액이 3.3만원이었다. 총자산규모는 8,822.9만원이었고, 부채는 756.5만원이었다. 이 중 실물자산이 7,288.3만원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금융자산규모는 1,534.6만원이었다.

<표 3> 분석대상가구의 재무비율산출에 사용된 관련변수의 평균값(N=884)

		변수정의	평균(만원)	표준편차
가계수지상태 관련변수	월평균가계소득	지난 1년간 한달평균 총소득액	192.2	101.0
	월평균생활비	지난 1년간 한달평균 총소비지출액	154.7	93.8
	월평균보험료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민영보험불입액	11.7	15.4
	월평균부채상환액	부채상환을 위해 매월 불입하는 액수	3.3	11.4
	월평균총저축액	지난 1년간 한달평균저축액	43.9	48.8
가계자산상태 관련변수	금융자산	금융권 및 사금융저축보유액	1,534.6	2,433.1
	(투자자산)	보유주식, 채권, 국공채의 시가총액	117.9	534.9
	실물자산	보유부동산의 시가총액, 전세 및 월세보증금	7,288.3	9,747.0
	총자산	금융자산+실물자산	8,822.9	10,485.1
	총부채	금융권 및 사금융부채보유액	756.5	1,583.0

IV. 연구결과

1. 재무비율의 분포 및 준거기준 만족도

<표 4>는 재무비율의 평균값 및 분포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계수지지표인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의 비율의 중앙값은 0.824이나 평균값은 1.151로 나타났다. 95%수준의 비율이 1.223임을 감안할 때, 상위집단에서 극단치를 가지는 가계들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자금지표의 경우 금융자산의 보유상태에 따라 큰 폭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와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의 중앙값은 각각 6.018과 4.922로 준거기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위험대비 지표인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혀 위험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 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구도 적지 않았고, 준거기준을 상회하는 가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무비율의 평균값 및 분포

재정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평균(표준편차)	5%	25%	50%	75%	95%	
안정성지표	가계수지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1.151 (6.305)	0.492	0.699	0.824	0.954	1.233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1.009 (32.628)	0.000	1.833	6.018	13.262	35.314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0.160 (73.593)	0.000	1.668	4.922	9.464	24.848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082 (0.412)	0.000	0.000	0.040	0.090	0.216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018 (0.062)	0.000	0.000	0.000	0.000	0.123
총부채/금융자산		96.479(680.061)	0.000	0.000	0.000	1.069	41.667	
	총부채/총자산	0.172 (1.179)	0.000	0.000	0.000	0.146	0.576	
성장성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235 (0.592)	0.000	0.071	0.188	0.301	0.508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215 (0.235)	0.000	0.041	0.140	0.303	0.714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12 (0.057)	0.000	0.000	0.000	0.000	0.066
실물자산/총자산		0.791 (0.233)	0.271	0.710	0.865	0.962	1.000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다수 있음에 따라 부채부담지표 관련 재무비율은 절반이상이 zero의 수치를 보였다. 부채관련 재무비율은 타지표에 비해 분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유동성있는 자산으로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낸 총부채/금융자산의 비율의 경우 가구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성향지표의 경우 투자자산이 전무한 가계가 대다수임에 따라 투자자산/총자산비율 역시 zero가 많은 반면, 실물자산/총자산의 경우 하위5%이 가구도 27.1%의 점유율을 보였다. 중앙값이 86.5%였다.

<표 5>는 제안된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에 근거하여, 분석대상가구들의 준거기준에 대한 만족정도를 나타낸 표이다. 11가지의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는 884가구 중 19가구로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지표에 비해 안정성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는데, 안정성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는 409가구로 46.3%의 비율을 보인 반면, 성장성지표를 만족하는 가구는 2.4%였다. 월평균가계소득에서 월평균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가계가 전체가구 중 33.1%나 되어, 거의 1/3의 가계가 최소한의 준거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여타 안정성지표에 비해 낮은 만족도인 67.1%를 보였다. 반면 비상자금지표와 부채부담지표는 비교적 다수 가구들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지표를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은 총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만족시키는 가구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준거기준이 5%에서 10% 사이여야 하는데, 분석대상가구 중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가계들의 자산운용형태는 안전지향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5> 재무상태평가지표의 만족정도

재정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준거기준	meeting%(가구수)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 0.9	66.9 (591)	66.9 (591)	46.3 (409)	21 (19)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 1	82.2 (727)	80.7 (713)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 1	80.8 (714)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 <0.2	67.1 (593)	67.1 (593)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	98.4 (870)	89.7 (793)		
		총부채/금융자산	< 10	91.5 (809)			
총부채/총자산		< 0.8	96.5 (853)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	70.0 (619)	70.0 (619)	2.4 (21)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 0.1	59.4 (525)	59.4 (525)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5< <0.1	2.7 (24)	2.5 (22)		
		실물자산/총자산	< 0.9	60.0 (530)			

2. 준거기준만족여부별 가구집단의 특성분석

<표 6>은 안정성과 성장성지표에 대한 만족도 여부에 근거하여 분석대상가구를 분류한 것이다. 재정상태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만족한 19가구, 안정성은 만족하되 성장성은 만족하지 못한 390가구, 그리고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가구는 473가구였다. 안정성은 만족하지 않으면서 성장성은 만족하는 가구는 단 2가구로 자료분석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안정성과 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부에 근거한 가구분포표

		성장성		
		no	yes	합계
안정성	no	473 (53.5)	2 (0.2)	475 (53.7)
	yes	390 (44.1)	19 (2.1)	409 (46.3)
	합계	863 (97.6)	21 (2.4)	884 (100.0)

<표 7>은 안정성과 성장성지표에 대한 준거기준만족여부를 근거로 분류한 집단에 대해 재무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계의 경우 생활비나 가계소득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중이 타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자금지표와 위험대비지표의 경우 전 집단에서 평균값과 중앙값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안정성/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부별 가구집단에 대한 재무비율 분석

재정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준거기준	안정성○, 성장성○ (n=19)		안정성○, 성장성× (n=390)		안정성×, 성장성× (n=473)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 0.9	0.737	0.767	0.718	0.753	1.515	0.941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 1	17.46	10.435	15.658	9.268	6.792	2.381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 1	12.629	9.094	9.107	6.494	10.533	2.229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 <0.2	0.073	0.075	0.075	0.064	0.088	0.000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25	0.010	0.000	0.012	0.000	0.022	0.000
	부채부담지표	총부채/금융자산	< 10	0.440	0.162	0.609	0.000	179.792	0.000
총부채/총자산		< 0.8	0.104	0.080	0.0760	0.000	0.255	0.000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 0.1	0.252	0.222	0.284	0.237	0.191	0.092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 0.1	0.350	0.342	0.279	0.221	0.157	0.067
		투자자산/총자산	0.05< <0.1	0.071	0.070	0.017	0.000	0.005	0.000
	실물자산/총자산	< 0.9	0.650	0.658	0.721	0.779	0.833	0.930	

<표 8>는 가계재정상태별로 가구 및 재무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모두 재정상태지표를 만족시킨 집단의 경우 19가구 전체가 봉급생활자였으며, 남성가구주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타집단에 비해 다소 젊었는데 특히 30대가구가 전체집단의 5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주거형태는 자가가가 68.4%로 타집단의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비자가가구 역시 31.6%라는 적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주거지역은 타집단에 비해 기타도시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8> 안정성/성장성지표의 준거기준 만족여부별 가구집단에 대한 가구 및 재무특성 분석

	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성장성×		안정성×, 성장성×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원수(평균)	400	1.106	391	0.936	372	1.264
1인	0	0.0	7	1.8	27	5.7
2인	3	15.8	23	5.9	55	11.6
3인	1	5.3	61	15.6	83	17.5
4인	9	47.4	222	56.9	204	43.1
5인	5	26.3	60	15.4	78	16.5
6인이상	1	5.3	17	4.4	26	5.5
가구주직업: 봉급생활자	19	100.0	354	90.8	348	73.6
기타근로자	0	0.0	36	9.2	125	26.4
가구주성별: 남자	19	100.0	374	95.9	420	88.8
여자	0	0.0	16	4.1	53	11.2
가구주연령(평균)	38.1	6.433	41.1	9.625	44.3	11.587
20대	1	5.3	36	9.2	41	8.7
30대	11	57.9	157	40.3	149	31.5
40대	6	31.6	122	31.3	137	29.0
50대	1	5.3	59	15.1	87	18.4
60대이상	0	0.0	16	4.1	59	12.5
주거형태: 자가	13	68.4	228	58.5	286	60.5
비자가	6	31.6	162	41.5	187	39.5
주거지역: 서울	5	26.3	99	25.4	108	22.8
6대광역시	7	36.9	107	27.4	148	31.3
기타도시	7	36.9	184	47.2	217	45.9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월평균가계소득	297.5	243	226.3	200	160.0	150
월평균생활비	213.6	190	161.3	150	146.7	135
월평균보험료	18.9	18	15.7	13	8.0	0
월평균부채상환액	2.5	0	2.5	0	4.0	0
월평균저축액	81.421	54	62.9	50	26.6	13
금융자산	3,303.6	2,875	2,137.2	1,232	942.2	330
(투자자산)	795.3	550	174.1	0	39.6	0
실물자산	7,773.7	6,000	8,214.3	5,000	6,485.4	4,000
총자산	11,077.3	8,875	10,351.5	7,382	7,427.6	4,990
총부채	1,305.3	700	541.9	0	905.2	0

관련재무특성을 살펴보면,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집단의 경우 가계소득과 월평균생활비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297.5만원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계의 160.0만원의 거의 배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이들 집단은 월평균보험료에서도 18.9만원으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다. 이들의 월평균부채상환액은 2.5만원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계의 4.0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였다. 이들 집단의 총자산규모는 1억 1077.3만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자산규모를 보인 안정성지표는 만족하나 성장성은 만족시키지 못한 가구 집단의 1억 351.5만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하지만 이들 집단은 실물자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금융자산(특히 투자자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구특성별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비율

● 가구주직업별

<표 10>는 가구주가 봉급생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비율에 대해 봉급생활자가구의 만족도가 기타근로자의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기적이며, 예상할 수 있는 소득이 있음으로 인해 가계재무관리의 안정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은 봉급생활자가구가 기타근로자가구에 비해 재무상태가 양호함을 시사한다. 봉급생활자가구는 금융자산의 보유정도와 관련이 높은 비상자금지표와 유동성지표에 있어서 기타근로자가구에 비해 훨씬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봉급생활자가구는 투자성향지표에서도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전 재무비율에 대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는 모두 봉급생활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구주직업별 재무비율의 평균 및 중앙값

재정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봉급생활자(n=723)		기타근로자(n=161)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0.904	0.809	2.261	0.940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1.850	6.667	7.236	3.216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10.898	5.217	6.845	2.944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079	0.043	0.094	0.018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020	0.000	0.010	0.000
총부채/금융자산		74.763	0.003	194.000	0.000	
	총부채/총자산	0.177	0.001	0.150	0.000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239	0.194	0.216	0.115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232	0.159	0.138	0.066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14	0.000	0.002	0.000
실물자산/총자산		0.762	0.838	0.856	0.929	

<표 10> 가구주직업별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비율

재정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meeting				기타근로자			
			봉급생활자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71.1	71.1	51.6	2.6	47.8	47.8	22.4	0.0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86.6	84.6			62.7	62.7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84.8				62.7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72.5	72.5			42.9	42.9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98.2				99.4			
총부채/금융자산		92.4	90.7	87.6	85.1					
총부채/총자산		97.2		93.2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73.9	73.9	2.9		52.8	52.8	0.0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64.2	64.2			37.9	37.9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3.2	3.0			0.6	0.0		
		실물자산/총자산	64.7				38.5			

● 가구주 연령대별

<표 12>는 가구주의 연령대별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시키는 비율은 대체로 30대가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자금지표의 경우 30대가구의 85%이상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총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은 4.4%로 여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29.8이라는 가장 높은 저축성향지표의 비율을 보였다(표 11).

반면 60대이상가구는 저축성향지표에서 0.161의 타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준거기준 만족비율 또한 절반에 못 미치는 48.0%를 나타내어 30대가구의 77.0%의 만족도와 격차를 보였다. 가계수지지표의 중앙값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0대이상가구는 중앙값이 0.922였고, 이 지표의 준거기준만족 비율은 70.8%로 높은 편이었다.

<표 11> 가구주연령대별 재무비율의 평균 및 중앙값

재정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20대가구 (n=78)		30대가구 (n=318)		40대가구 (n=266)		50대가구 (n=147)		60대이상가구 (n=70)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지표	0.777	0.794	1.525	0.797	0.989	0.839	0.980	0.840	0.864	0.922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7.906	5.495	12.956	6.814	10.697	6.565	10.415	5.369	8.251	1.695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5.222	4.143	14.999	5.410	8.136	5.391	8.467	3.889	5.277	1.695
	위험대비지표	0.056	0.030	0.133	0.057	0.064	0.045	0.043	0.025	0.035	0.000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014	0.000	0.024	0.000	0.016	0.000	0.015	0.000	0.014	0.000
총부채/금융자산		15.999	0.000	36.768	0.089	138.591	0.000	53.015	0.000	369.191	0.000	
총부채/총자산		0.103	0.000	0.263	0.011	0.140	0.000	0.078	0.000	0.154	0.000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지표	0.245	0.222	0.298	0.208	0.180	0.144	0.232	0.169	0.161	0.0625	
	유동성지표	0.315	0.243	0.234	0.165	0.216	0.144	0.166	0.094	0.121	0.032	
	투자성향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19	0.000	0.015	0.000	0.012	0.000	0.005	0.000	0.002	0.000
투자자산/총자산		0.672	0.755	0.763	0.834	0.773	0.851	0.834	0.906	0.879	0.968	

<표 12> 가구주연령대별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비율

재정상태평가 지표	해당재무비율	%meeting															
		20대가구			30대가구			40대가구			50대가구			60대가구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73.1	73.1		71.4	71.4		66.9	66.9		62.6	62.6		70.8	70.8	
	비상자금 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84.6			87.4			82.0			80.3			80.9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82.1	82.1		85.8			80.8			78.9			78.4		
	위험대비 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59.0	59.0	47.4	75.5	75.5	52.8	71.1	71.1	48.1	61.2	61.2	40.8	66.6	66.6	47.2
	부채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98.7			98.4			98.5			98.0			99.4		
		총부채/금융자산	96.2	92.3	1.3	92.5	90.9	3.5	91.0	88.7	2.3	91.2	90.5	0.7	94.1	91.6	1.7
총부채/총자산		96.2			97.2			95.5			98.6			95.2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74.4	74.4		77.0	77.0		68.8	68.8		66.0	66.0		48.0	48.0	
	유동성 지표	금융자산/총자산	79.5	79.5	1.3	66.0	66.0	3.8	60.5	60.5	2.6	46.3	46.3	0.7	71.6	71.6	2.0
	투자성향 지표	투자자산/총자산	1.3			4.4			3.0			0.7			2.0		
		실물자산/총자산	80.8	1.3		66.4	4.1		61.7	2.6		46.3	0.7		73.0	2.0	

● 자가보유형태별

<표 14>는 자가가구와 전세 및 월세를 포함하는 비자가가구의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본 결과에 의하면 가구의 자가보유형태는 가계재무상태에 현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월평균가계소득대비 월평균생활비 비율에 대한 준거기준 만족정도는 비자가가구가 높았다. 이는 이들 비자가가구의 향후 자가구매를 대비한 현재시점에서의 낮은 소비성향을 가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준거기준 역시 비자가가구가 높았는데 이는 비자가가구가 자가구매를 위해 금융자산 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인해 비자가가구의 총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에 대한 준거기준 만족정도는 2.0%에 불과해, 자가가구의 3.2%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자가가구가 총자산에 대한 실물자산의 비율에 대한 준거기준 만족도가 51.1%로 비자가가구의 73.0%에 비해 낮은 것은 자가가구의 경우 현재 기거하고 있는 주거시설 외 여타 부동산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3> 자가보유여부별 재무비율의 평균 및 중앙값

재정상태평가 지표	해당재무비율	자가가구(n=528)		비자가가구(n=356)		
		평균	중앙값	평균	중앙값	
안정성 지표	가계수지 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1.275	0.837	0.967	0.800
	비상자금 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12.222	6.247	9.211	5.829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8.719	5.076	12.297	4.605
	위험대비 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0.073	0.040	0.096	0.041
	부채부담 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0.023	0.000	0.012	0.000
		총부채/금융자산	126.865	0.018	51.414	0.000
총부채/총자산		0.112	0.001	0.261	0.000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 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0.200	0.170	0.287	0.206
	유동성 지표	금융자산/총자산	0.158	0.104	0.300	0.229
	투자성향 지표	투자자산/총자산	0.007	0.000	0.018	0.000
		실물자산/총자산	0.842	0.896	0.686	0.766

<표 14> 자가보유여부별 재무비율의 준거기준 만족비율

재정상태평가지표		해당재무비율	%meeting							
			자가가구			비자가가구				
안정성 지표	가계수리지표	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64.2	64.2	45.6	0.0	70.8	70.8	47.2	1.7
	비상자금지표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83.1	82.4			80.9	78.1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82.4				78.4			
	위험대비지표	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67.4	67.4			66.6	66.6		
	부채부담지표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97.7				99.4			
		총부채/금융자산	89.8	88.4			94.1	91.6		
총부채/총자산		97.3		95.2						
성장성 지표	저축성향지표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68.2	68.2	2.7		72.8	72.8	2.0	
	유동성지표	금융자산/총자산	51.1	51.1			71.6	71.6		
		투자자산/총자산	3.2				2.0			
	투자성향지표	실물자산/총자산	51.1	2.8			73.0	2.0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가계재무상태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제안된 가계재무비율 및 준거기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안된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는 2.1%에 불과하였다. 성장성지표에 비해 안정성지표를 모두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은 46.3%로 거의 절반수준인 반면, 성장성지표를 만족하는 가구는 2.4%였다. 비상자금지표와 부채부담지표는 비교적 다수 가구들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지표를 만족하는 가구의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은 총자산에서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만족시키는 가구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인데, 여전히 가계들의 자산운용형태는 안전지향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재무비율을 모두 만족하는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계재원이랄 수 있는 가계소득과 총자산 규모가 타집단에 비해 높았고, 월생활비, 월평균보험료, 월평균저축액이 많았으며, 자산보유방식에서도 금융자산과 투자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봉급생활자였고, 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에 의한 가계재무상태의 평가가 보편타당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장성지표부분을 함께 다룸으로써 현재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재무상태평가지표를 제시한다고 보아진다.

셋째, 봉급생활자가구, 2, 30대의 젊은 연령층 가구, 그리고 자가보유가구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재무상태지표의 준거기준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로써의 재무비율에 관한 연구는 향후 다양한 형태로의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 중 하나는 1998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가계의 대표성을 지닌 자료 중 자산과 부채자료를 포함하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update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근로자가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비근로자가계를 포함한 분석이 요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에 대한 준거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준거기준이라 함은 바람직한 재무비율의 임계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준거기준이 이상적인 재무비율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비율의 경우 준거기준은 1.0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비상자금의 이상적인 비율은 3-6배라 일컬어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준거기준 외 표준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에 대한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에 관한 다변량분석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여타 가구특성이 조절된 상태에서 어떤 가구 유형이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준거기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재무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투자자산의 비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물론 우리나라 가계들의 투자자산 운용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이 비율의 만족비율이 2.7%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제안되고 검증한 재무지표에 대한 준거기준은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연령계층의 특성에 따라 저축성향관련비율이나 부채부담지표관련 비율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준거기준의 만족정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대가구의 재무비율에 대한 준거기준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재무비율의 기준이 재무관리의 가장 주요변수라 할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별로 세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2).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2002년도 한국 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5-15.
- DeVaney, S.(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DeVaney, S.(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or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3.
- Garman, E.T. & Fogue, R.E(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Prather, C.G.(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 53-70.